

들꽃편지 660

2024.1.20. 대한
<https://cyw.pe.kr>

진여(眞如)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 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쉬운 사29:13)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공동 막7:9)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 무조건 재판에서 이기는 변호사를 유능하고 실력 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 없으면 명백하게 잘못하지 않았어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한(恨) 맺힌 사람들이 많은 대한(恨)민국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화병(hwabyeong 鬱火病)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란한 말주변과 변호 실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이 ‘무죄’라고 판결해도 하나님과 사람의 양심으로는 여전히 죄입니다.

과거에는 ‘봉건제’로 사람을 차별하였다면 지금은 ‘자본’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사라지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교회마저도 자본주의에 물들어 ‘하나님’과 ‘돈’의 자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하니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고..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眞如)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뒤바뀐 진짜와 가짜를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해 넘어가는 저물녘에 들길을 걸으며 최용우 올립니다.



진여(眞如)란

‘참되고 항상 그러하다’는 뜻으로,
眞은 ‘진실’이란 뜻이고 如는 ‘항상 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眞如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참 모습’을 가리킨다.

(경산 김시현 글씨 <https://vo.la/gFFUq>)

믿음과 행위

‘믿음’이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모두 침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란을 떠났다면,

그것은 그냥 ‘행위’일 뿐 ‘믿음’이 아니다.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5 술 취한 사람

이른 새벽부터 경비 일을 하다 보면 밤 9시쯤에는 피곤이 밀려옵니다.

그나저나 밤 11시까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1시 이후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편한 곳에 두 다리 쭉욱 뻗고 자는 것이 아니라 경비실 구석에 있는 조그만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누가 인터폰으로 급하다고 부를지, 언제 화재 감지기 비상벨이나 엘리베이터 비상벨이 울릴지 항상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 9시쯤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집에 들어가다 경비실에 들렸습니다.

“야! 니가 뭐야! 나는 말야 예산 토박이야. 어떤 놈이 나를 건드려, 까불지마. 자숙아.” 갑자기 저의 목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짜증이 순간 확 올라왔습니다.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서 술쳐먹고 와서 행패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파트 주민이기에 참았습니다. 한 시간 넘게 술 취한 사람의 넋두리를 들은 다음 가까스로 12층 집에 모셔다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힘들면 술을 먹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경비실 와서 떠들며 말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였습니다.

“주님! 술 취한 사람을 만나 순간 짜증을 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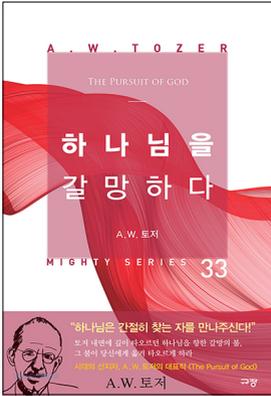
“주님 술 취한 사람을 만나 순간 짜증이 올라왔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님을 갈망하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33
A.W 토저 지음/이홍복 옮김
192쪽 15,000원 규장 2023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토저 내면에 깊이 타오르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
그 불이 당신에게 옮겨 타오르게 하라

1. 조명(照明)

기독교 신학은 ‘선행적(先行的) 은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조명(照明)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조명을 받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2.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과 갈망도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말도 공공연히 합니다.

3. 하나님은 인격체

그분은 다른 인격체들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바라고, 고통당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로로 사용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속량 받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과 생각의 소통이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슴 설레는 신앙의 요체(要諦)입니다.

4. 거룩한 역설의 사람들

성 버나드(St. Bernard, 1090. 클레르보의 대수도원장)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계속 찾는다’고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사랑의 역설(逆說)입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채하면서 현재 상태에 쉽게 안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설을 비웃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불타는 그들의 자녀들은 복된 경험을 통해 이 역설을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5.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린 세대

오늘날 스스로 정통 근본주의라 자처하는 선생들은 ‘일단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는 교묘한 거짓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의 향기를 발하는 무수한 성도의 체험에서 나오는 ‘마음의 신학’은 배척되고, 대신 ‘자기만족에 빠진 성경해석’을 환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6.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들

영적 찬바람이 뽕뽕부는 이 시대에도 알팍한 구원의 논리에 만족하지 않고, 논리의 힘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적한 곳을 찾아 들판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며 “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불가사의한 존재를 맞보고 마음으로 만지고, 영혼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7.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그분을 찾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단순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깊은 어둠 속에 숨기십니다. 온갖 외형적인 것들에 둘러싸인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8. 하나님 한분만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잡다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핵심적인 것만 추려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핵심적인 것들은 몇 개 안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는 짓을 그만두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솔직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9. 하나님을 보화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보화로 삼은 사람은 세상 보화들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해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유의 근원이신 분이 함께하기에 그분만이 모든 기쁨이요 만족이

요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소유한 것은 순수하고 정당하고 영원합니다.

10. 밀려난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밖으로 밀려 나가시고, 대신 물질이 내부로 들어 오게 되면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이 인간의 내부를 점령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 안에는 본질적으로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좌가 사라지고, 대신 고집스럽고 공격적인 세력들인 도덕적 암흑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11. 내 안에 등지를 튼 원수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소유하려는 타락한 생명의 질기고 질긴 뿌리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등지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선물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물질들이 차지했고, 이런 괴물 같은 '자리바꿈'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망이 되었으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닙니다.

12. 복된 가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있는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외로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마음에서 소유욕을 전부 뿌리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복된 가난은 폭군처럼 군림하려는 사물에게 더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압제자의 멍에를 부숴버립니다.

13. 더러운 반역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통해 감미롭고 신비로운 사귀를 즐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미소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그분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러운 반역'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14.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모든 속량은 저 '더러운 반역'의 비극적 결과 들을 무효화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들여 그분과 영원히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만족스런 방법으로 처리되고,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며, 그분과의 의식적(意識的) 교제를 회복하여 타락 이전처럼 그분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했습니다.

15. 첫걸음

그분이 먼저 그분께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평안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말씀 드리리라”(눅15:18)라고 증언거릴 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분께 가는 첫걸음입니다.

16. 임재 체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하고, 교회는 그분의 임재가 없어서 영적 기근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병든 신앙을 즉시 고칠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성공하면 우리는 편협함을 벗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17.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단 한 번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모든 물질과 모든 영과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 어떤 말이나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8. 서기관과 선지자

서기관은 자기가 읽은 것을 말하지만,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은 서기관과 하나님 앞에 가보았던 선지자 사이에는 대양만큼이나 넓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귀에 거슬리는 서기관의 음성은 많이 들리지만, 휘장을 찢히고 들어가 내면의 눈으로 ‘저 놀라운 하나님’을 본 선지자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일은 드뭅니다.

19. 자아 휘장

자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는 불투명한 휘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며, 오직 영적 경험에 의해 제거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자아를 죽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집행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 심판받게 해야 합니다.

*독서일기 -최용우

엄마

가만히 불러보네
엄마
내 마음 가득히
그리움이 차오르네

평생 고생만 한
엄마
천국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잘 살지?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최용우/을 엄마 양순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그 몸 가지고 사신 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건강한 몸 주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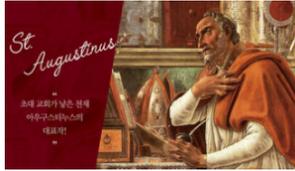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400원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274. 순교자에 의한 악령의 정복

하나님 나라는 순교자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에 맞서 피 흘리며(히12:4) 싸울수록 이들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시민으로 대우해준다.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을 한결 고귀한 의미에서 '영웅'이라 부를 것이다. 그것은 순교자들이 마귀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엡2:2)과 거기에 있는 세력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275. 악령의 정복과 참된 구원으로 가는 길

사람들은 적의로 가득 찬 적들의 공격을 자신들이 굳게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써 무찌른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도 한분 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딤후2:5)를 통하여 속죄가 효력을 얻었다. 우리는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인간은 오로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죄로부터 정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 덕분이다.

276. 혼의 정화에 대한 포르피리오스의 견해

포르피리오스는 태양이나 달에 아무런 기도를 해도 혼이 정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아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혼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늘 신들 가운데 가장 존중받는 태양과 달에게 아무런 기도해도 인간을 정화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정화될 수 있는가?

277.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말씀이아말로 우리들을 정화한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그 자체로 우리를 씻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요1:14)라고 할 때 말씀이 갖는 그 덕성으로 정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자 미처 그 숨겨진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져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요6:60)라고 말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떠나가자, 그분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것은 영이며 육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요6:63)고 하셨다. (계속)

수덕의 삶 2



11.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현대어성경 로마서15:1-3)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온갖 이기심과 탐욕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만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잘먹고 잘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마귀가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보다 더 잘 살도록 진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이 박힌 띠를 두르고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같은 일로 바쁘게 활동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서 자신의 자아를 즐겁게 하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겉모습으로는 이웃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정치인의 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으로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마6:3-4)

진심으로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은 굳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삶을 이 타적인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7671

12. 영적 전투 모드로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수덕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모조리 몰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민33:52) 이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배울까 염려해서였습니다.

내가 자아를 얼마나 극복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총처럼 부러먹던 마귀가 나를 빼앗기고서 가만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면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비교적(?) 순탄하고 적당히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과 극복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광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번째 훈련은 '침묵'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마귀는 오직 내 말을 듣고 내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귀'는 내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침묵'을 하면, 마귀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로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마귀는 약이 올라서 디질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가장 먼저 '침묵'부터 배웁니다.

7672

13. 악을 이기는 방법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을 이기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되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게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을 알리고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적에게 표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위험합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농담처럼 말하지 말며, 질문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말며, 자신의 소원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큰 부자들 리스트를 만들고 오랫동안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부자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냈는데, 그것은 ①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②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③자신의 재산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였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특히 돈 자랑을 하는 것은 나의 돈을 빼앗아가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미친짓입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지 말며, 자신의 학식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말며,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지 말며, 말하더라도 부정적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며, 아무하고도 충돌하지 말며, 누구하고도 논쟁하지 말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에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요일3:1) 7673

14.세상에서 사라지기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원리’를 알아낸 사람들이 바로 사막 교부(Desert Father)들입니다. 3세기경에 주로 이집트의 스키테스 사막에서 생활한 은수자들, 금욕주의자들, 수사들, 수녀들(사막 교모)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중세의 수도원은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헤시카즘 운동을 포함하는 동방 정교회 영성의 대부분은 사막 교부들의 실천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복음주의와 펜실베이니아 경건주의 그리고 영국에서의 감리교 부흥과 같은 종교 부흥들조차도 사막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사막으로 갔으며 ‘은둔자들’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옆에서 같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봤을 때 그들은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막 교부들은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처럼, 사막 교부들처럼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요일3:1)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無)로 처신하기 때문입니다. 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숨으라는 말이 황당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눅6:26)라고 했습니다. 7674

15. 한 가지에 집중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뵈옵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흥분, 정욕을 일으키는 것,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헛된 일에 대한 요란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눅10:42)

마귀는 ‘한가한~, 느린~, 여유로운~, 조용한~’이런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요란해야 뭔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요즘 한가하다”고 하면 어쩐지 게으른 사람 같아 보여서 “정신없이 바빠, 시간이 없어”라고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걱정하고.. 아주 정신이 없구나.”(눅10:41)라고 하셨습니다.

목욕을 하려면 먼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에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세상 적인 것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재미나 쾌락이나 유희를 탐하지 말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감각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눈에 뜨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서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요일2:16)이며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7675

16. 세상의 정체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세상이란, 마음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생명나무를 차단하는 어두운 불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붙들고 감각적으로 만족시켜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못 보게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

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쉬운성경 요한복음 17:25-26)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우리의 욕망과 충동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시리아의 성 아이작은 “부유함을 좋아하는 것, 명품을 소유하려는 욕망, 육체적인 즐거움을 구하는 것, 명예욕,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짓밟으려는 승부욕, 유명한 인물이 되려 하는 권세욕,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받으려는 욕망, 칭찬에 굶주림, 육체적인 행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내 마음과 결합 되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약4:4)라고 했습니다.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간교한 정체를 알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7676

17.한 주인만 섬기기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 (약4:4)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마6:24) 좁은 골짜기에 있으면서 높은 산꼭대기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고전9:27)라고 하면서 세상을 벗하려는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순간 순간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합니다.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되도록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유희과 오락과 게임을 즐기며 먹고 마실 것인가? 나는 나의 재물 창고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잠깐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할 것인가? 나는 교회로 달려가야 할 시간에 세상 재미를 위해 운동장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들도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생각해 보고 예수님처럼 하지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눅16:10)고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인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일인가?”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되며, 심판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써서 한발 전진했다가 단숨에 열 발을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7677

18. 남의 죄와 나의 죄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죄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어두움과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판단하려는 욕망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인지 알게 되면 차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18:13)하고 통회 자복하며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하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죄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아직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두움을 뚫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빛나는 천상의 빛을 단 한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죄가 휘감겨 있는지를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완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자신의 죄를 벗겨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까지 판단할 여력이 없습니다.

회개는 남의 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수 많은 개혁자들의 ‘개혁 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7678

19. 속죄론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죄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의 덩어리이며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순종이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훨씬 더 심각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속죄론(贖罪論)’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죄가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칼빈(John Calvin)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대신한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한 대체는 죄인과 그리스도 간의 믿음에 의한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 연합은 ‘성령님의 도움(역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칼빈은 이 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격간의 속죄교리를 의의 전가 교리로 설명합니다. 벨지신앙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는 20-22에서 ‘속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속죄의 이론만 해도 다섯가지가 넘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내면을 뒤엎어서 회개를 시키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도 없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속죄론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7679

20.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덴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탐욕이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평생 ‘바라는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만, 조급함, 분노, 탐심, 두려움, 번민, 걱정, 증오, 게으름, 낙심, 의심 같은 감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비참하게 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도로테우스 수도원 원장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과 일치시킨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것(막11:24, 눅6:34)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에 내가 나를 위해 따로 구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살피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났고 자기보다 더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자기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눅24:42)

이미 앞드린 사람은 더 앞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덕의 삶은 아무것도 더는 구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7680

©최용우



꽃 (사진:최용우)

34년의 세월

드디어 <들꽃편지>합본 발행 작업이 끝났다. 내 나이 27살때인 1990년 1월호 <들꽃편지>를 창간하여 내 나이 59살때인 2023.4월 제651호까지 500쪽 분량 20권을 마무리 지었다. 페이지로 하면 모두 10,172쪽이다. 처음에는 손글씨로 써서 만들다가 '워드프로세서'가 나왔을 때 몇 년 동안 워드로 찍었고, 그 후 PC시대가 되면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편집을 하고 있다.

초창기 10년분은 편집 파일 자체가 없으니 '쪽지'를(그때는 쪽지라고 불렀다)전부 스캐너로 스캔하여 파일을 만들었다. 그 작업이 지루하고 힘든 반복 노동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

합본책을 만든 이유는 내 평생 노력의 결과물을 어딘가에 하나쯤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들꽃편지>는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각 2권씩 진열대에 꾸루룩 꽂혀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도 판매함)

상추 파먹자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아내가 상추밭에 떨어진 상추 씨앗이 때도 모르고 났다며 얼어 죽기 전에 화분에 몇 개만 옮겨심어 달라고 한다. 상추 싹 네포기를 떼서 가지고 들어와 화분에 옮겨 심어 우리집에서 햇볕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창가에 놓았다. 겨울내내 상추를 따... 먹을 수 있을까? 어쨌든

상추는 잎채소 중에서도 새싹이 자라는 속도가 가장 빨라 잘만 키우면 수확량이 많은 채소이다. 그런데 작년인가도 모종을 화분에 심었었는데 키만 쑥 올라갔지 잎사귀는 따먹을 만큼 크지 않아서 뽑아버린 일이 있다. 상추는 잎을 따서 상추쌈 하려고 키우는 건데 키만 크니 쓸데가 없었다. 어쨌든, 올해는 창가에 딱 붙여놓고 햇볕을 많이 쬐여 주어야겠다. 상추야, 나중에 삼겹살 만나게 해줄테니까 잘 자라거라. 알았지? 응?



의자 스토리

코스트코에 갔다가 의자가 있어서 잠시 앉아 보았더니 너무 너~무 편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돈내산(내 돈내고 내가 산다)'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 뜨악!

어찌어찌 보조를 받아서 의자를 샀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 보니 그동안 180만 개나 판매가 되었다는 의자계의 BTS 였다.

아주 유명한 의자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의자의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틸팅' 기술을 개발하여 제안을 했는데, 등받이가 얼마나 안 부서지고 튼튼한가가 좋은 의자의 기준이던 시절이라 당연히 상사로부터 목살을 당하고...

그 사람 독립하여 의자회사 만들어서 틸팅 기술을 적용한 의자 만들어 초대박을 쳤다. 지금은 고급 의자는 전부 기본으로 틸팅 기술을 장착한다. '누운 것보다 편한 의자는 처음입니다.'

의자 세계에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니...



어디까지나

겨울엔 뭐니뭐니해도 붕어빵의 계절이다. 그런데 올해는 붕어빵 보기가 힘들어져서 붕어빵 파는 동네를 '붕세권'이라나 뭐라나...

붕어빵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가격이 훌쩍 뛰어버렸고, 세금도 안 내고 길거리에서 장사한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요즘 '할 거 없으면 붕어빵 장사라도' 하기가 어려워졌다. 참, 살기가 힘드니 사람들 인심도 야박해진 것인가?

옛날 일기장을 보니 2006년엔 1천원에 붕어빵 5마리였었다. 와~ 작년까지만 해도 1천원에 2마리는 줬었는데 올해부터 1천원으로는 붕어빵을 살 수가 없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3마리에 2천원으로 올랐다.

나는 붕어빵을 3마리는 너무 많아 딱 1마리만 먹고 싶다. 그래서 700원을 내고 1마리만 달라고 했더니 봉지에 담지도 않고 그냥 붕어빵만 손에 털링 쥐어줘서... 살짝 기분이 나빠졌다.



부부대로

결혼 80년을 맞아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영국의 한 부부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을 두 단어로 요약했다.

그건 바로 "Yes, Dear"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맞장구!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하려면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를 쳐서 두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야... 맞다. 맞는 말이다. 설령 상대방의 말이 아닌 것 같아도 "당신 말이니까 맞아. 당신이 틀린 말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 하고 그냥 속아주는 것이 좋다.(상대방도 다 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돼...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해도 어쩐지 틀리다고 하고 싶어지니... 아직 자존심이 살아 있다. 아직 밥그릇 털 뺏겨봐서 그래... 음.

신혼 초에 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뉘야 했던 그 굴욕의 순간도 잘 참았는데, 못 참을 게 뭐가 있어.



겨울 민들레

세상에나, 날씨가 따뜻하니 12월에 돌틈에 민들레꽃이 피었다. 눈이 펑펑 내려서 겹겹이 쌓이고 세상은 푹푹 얼어붙은 동짓сед달 지나긴 겨울인데, 벌써 뿌리는 동면에 들어가고 잎사귀는 녹아 없어져야 하는 12월에... 민들레꽃이라니...



언젠가 수천미터 상공에서 비행하던 비행사가 그 높은 곳까지 날아 올라온 민들레 포자를 보았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초고속 비행을 마친 비행기 몸체에서 정비사가 민들레 포자를 떼어냈다는 글을 읽은 적도 있다. 민들레는 정말 그 생명력이 엄청나구나.

민들레는 땅 위에 보이는 줄기의 6-7배 길이로 땅속에 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뿌리가 깊어 웬만해서는 안 죽는다.

그런데 민들레는 그렇다 쳐도 꽃에 붙어있는 저 파리처럼 생긴 벌(?)은 뭐냐? 아님, 애네들이 지금 때도 모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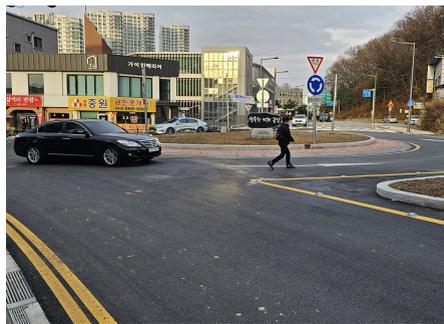
개판 삼거리

우리동네에서 가장 개판 오분전인 곳이 삼거리이다. 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오일장이 서는 날 시골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내리면 마치 동네 마당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는 곳이 삼거리다.

오일장터를 가려면 삼거리를 가로질러가야 하는데, 할머니들은 '교통신호?' 그게 뭐여? 그런 거 몰라~

그럼에도 그동안 삼거리에는 신호등도 없고 땅바닥에 금도 제대로 그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차든 사람이든 알아서 가는 무법천지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은 삼거리이지만 연결된 길이 7개나 되는 사실상 7거리이니 길바닥에 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그어야 할지 골치 아프게 복잡한 곳이다.

1년 공사 끝에 드디어 삼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생겼다. 차도 사람도 고양이도 이제 교차로를 따라 뱅뱅~ 뱅뱅이를 돌아야 한다.



진주혼식

결혼 30주년을 진주혼식(眞珠婚式) 줄여서 '진혼식'이라고 한다. 진주로 된 선물을 주고받으며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날이라는데... 췌! 아내가 알면 안 되니 조용~~~.(전 진주 살 돈이 없어요ㅠㅠ)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밥 먹는 날이라고만 해주세요.



“30주년이면 특별한 날이니 장모님을 모시고 꽃마름 샴브사브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놉! 우리 엄만 소소한 시골밥상 좋아하시지 꽃마름 같은 곳에 가면 위장이 놀래볼어~” 할 수 없이 좋은밝은만 불러 가족 식사를 했다.

좋은이가 꼭두새벽에 일어나 대전 성심당에까지 가서 케이크를 사와 30년 촛불 3개 쬐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근데, 생일이 아니잖여? 무심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다 말고 식구들이 깔깔거리며 그냥 흑 불어 촛불 쬐다.

원 ₩

비학산 정상에 있는 오래된 도토리나무의 옹이에 다람쥐가 모아 놓았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아 놓았을까 도토리가 한 주먹 있다. 마치 나무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옆에서 쉬던 등산객이 돈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그런데 돈은 왜 ‘돈’이라고 하고 ‘0원’이라고 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을 하는데... 나도 몰라요.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허무하게도 ‘돈’은 뽕뽕 돈대(돌다)는 그 ‘돈’이고(발음을 잘못하면 ‘돌’이 된다), ‘원’은 동그라미의 그 원이다. 그냥 ‘영(0)’이라는 뜻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영’을 일본 발음으로는 ‘엔(円)’ 중국 발음으로는 ‘위안(元, 圓)’ 베트남 발음으로는 돈이 ‘동(銅)’소리가 난다.

한국의 ‘원’에 해당하는 한문은 전에는 환(圓)을 썼는데 지금은 없다. 한국의 ‘원’은 무조건 한글로 써야 한다. 근데 나 지금 뭐하고 있냐?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34회 구병산(보은)-12.5 3명

구병산 다녀왔다. 적암리 마을주차장에 차를 대고 속리산휴게소를 들머리로 위성지국-협곡-구병산-백운산-853봉-폐사타-적암마을까지 약7.5km를 7시간 걸었다.

길이 험하여 너무너무 힘든 산행이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이 정력에 너무 좋아서 스님들 양기가 충만하여 절을 유지할 수가 없어 절과 약수터를 폐쇄하였다는 얘기가 있다. 그 절터를 지나오는 길은 낙엽이 쌓여 길이 안 보이는 바람에 몇 번이나 길을 잃었다. 아무리 쉬운 산이라도 산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제635회 내장산(정읍)-12.14 2명

최용남과 함께 내장산 다녀왔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겨울날 형제는 용감했다. “형님, 비 오는데도 올라가요?”

용우: “등산을 하다 보면 비오는 날도 있고 눈오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산에 못가지. 그냥 그날 날씨에 맞춰서 비오면 우비 입고, 더우면 하나 벗으면 돼. 인생이 내 맘대로 안살아지는 것처럼 등산도 내 맘대로 안되지. 그냥 고바우길이면 쉬엄쉬엄 올라가고, 꽃길이면 휘파람을 불고.. 그때그때 상황에 잘 맞추면 무난하고 무리가 없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비상이다. 똥이 마려워.”



▲제636회 비학산293 (일출봉252m) -2023.12.27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대한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대설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한해 계획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다가오는 새해(음력 설)를 계획하는 절기입니다. 대한은 그 이름만으론 가장 추울것 같지만, 소한이 가장 춥고 대한은 오히려 푸근합니다.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 약 일주일 사이를 신구간(新舊間)이라 해서, 이때는 이사, 집수리, 집안 정리, 행사를 해도 큰 탈이 없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이때 이사대란이 일어난다고 하죠.



②표지사진 이야기

날씨가 흐리고 꾸물럭거리는 날은 왜 꼭 ‘칼국수’가 먹고 싶을까? 아내가 장군면에 민물새우칼국수 끓여주는 면장님이 있다기에 갔다. 영평사 가는 한적한 길가에 있는 식당이었다. 차를 주차하고 내렸는데 어디서 개 한마리가 막 달려와 온몸으로 환영을 한다. 식당에서 키우는 개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가만히 보니 다리를 다쳐서 피가 난다. “아이고 야, 너 어디에서 다쳤냐? 니네집 어디야?” 개를 쓰다듬어 주고 집에 가라고 했더니 도로를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누가 버린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기출을 한 것인지 유기견인지 싶다. 그렇게 개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개를 키우다가 성견이 되면 감당이 안 되어 한적한 곳에 슬쩍 버리고 가는 사람들 많다. (사진:이인숙)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아내에게 바치는 시> 컬러216쪽 15000원 -2023.12.26. 출간!

79. 들꽃편지20권-호박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20

78. 들꽃편지19권-유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1

77. 들꽃편지18권-사철채송화호 /컬러510쪽 30100원 -2023.11.6

76. 들꽃편지17권-데이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0.4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1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12월 재정결산

2023년 12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광현 김상식 김중운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성희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옥진 정호숙 정호숙 조일구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새벽기도 순천착한양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실로암교회 한우리교회 함안중앙교회
31분이 1,7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격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4.1.19.일까지 7714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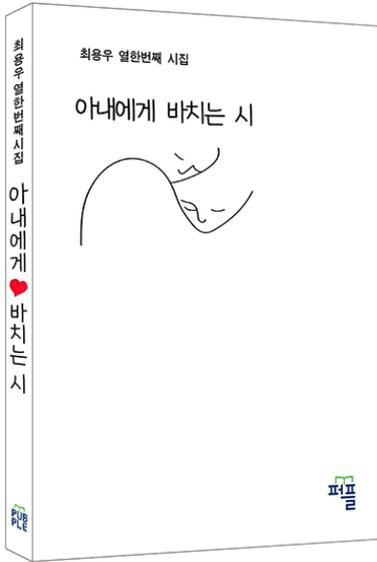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80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흠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
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새로 나온 책



꽃 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
별 같은 그대 있어
내 마음이 별 같습니다

최용우 216쪽 15000원
교보문고 퍼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 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하수영이라는 가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나는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써서 바치고 싶었다.
가수 하수영은 그의 노래를
〈아내에게 바치〉지 못했지만(그는 총각이었다.)
시인 최용우는 아내에게 바치는 시 200편을
지난 30년 함께 살아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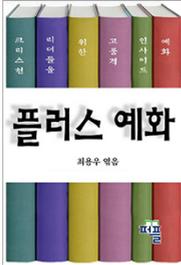
〈목차〉

- 1부 신혼 -결혼1년 지혼식 -48편의 시
- 2부 꽃 -결혼4년 화혼식-48편의 시
- 3부 수정 -결혼15년 수혼식 -48편의 시
- 4부 진주 -결혼30년 진혼식 -48편의 시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플러스 예화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펴내는 큐티 목상집 월간<생명의삶+>(목상과적용)코너에 17개월 동안 썼던 예화 452편을 모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inside 예화집입니다.

17,000원 490쪽



① 맛있는 주보+파일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보고 나서 모이두고 싶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보기 좋고 영양가 만점인 맛있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② 멋있는 주보+파일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 지입니다. 주보는 교회의 문화요 거울이요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멋지고 근사한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③ 폼나는 주보+파일

디자인 주보는 시각적 효과를 뇌에 각인시키지만 내용중심 주보는 지성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죠. 내용 중심의 폼나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④ 탐나는 주보+파일

9가지 내용이 실려 있어 누구나 탐낼 만 한 알찬 주보를 교회 이름만 바꾸어 우리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⑤ 양육주보+파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한다는 주제에 맞추어 편집한 양육 중심의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0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